

장정, 첫날 코스레코드 선두

LPGA 롱스드러스챌린지
보기없이 베디 8개 '완벽'

장정(26·기업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안 군단' 시즌 10승 달성의 선봉에 나섰다.

장정은 22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덴빌의 블랙호크골프장(파72·6천212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롱스드러스챌린지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8개의 베디를 뽑아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다. 8언더파 64타는 블랙호크골프장 코스레코드 65타를 1타 경신한 새로운 기록.

5언더파 67타를 친 카리 웹(호주)과 로리 케인(캐나다) 등 2위 그룹을 3타차로 따돌린 장정은 지난 6월 웨그먼스로체스터 우승 이후 3개월 만에 우승컵 1개를 보탰다.

이날 장정은 드라이브샷이 벗어난 것이 단 2차례에 불과했고 아이언샷 역시 2번만 그린을 놓쳤을 뿐 대부분 베디 찬스를 만들어냈다.

2002년과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한희원(28·월라코리아)과 강지민(26·CJ), 박희정(25·CJ)이 3언더파 69타를 치면서 공동 7위에 올라 무난한 1라운드를 치러냈다.

모처럼 LPGA 투어 무대에 나선 김미현도 2언더파 70타를 치며 선두권 도약의 디딤돌을 놓았다.

상금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4언더파 68타를 떠려 강력한 우승 후보의 면모를 뽐냈고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2언더파 70타로 통산 70번째 우승을 노린 첫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같이 코스레코드 작성했지만... 강지만, 강경남 따돌리고 1위

코오롱·하나은행 오픈 2R 12언더

강지만(30·동아회원원)이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2라운드에서 코스레코드를 작성하면서 선두로 뛰어올랐다.

강지만은 22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파71·7천86야드)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이글 1개와 베디 7개, 보기 1개로 8언더파 63타를 치며 12언더파 130타로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을 1타차로 제쳤다.

3년 전부터 이 골프장 소속으로 있는 강지만은 흠 코스나 다른 없는 이점을 마음껏 활용해 코스레코드를 작성했고, 강경남도 같은 기록을 세워 함께 11언더파 131타로 강지만을 추격했다.

10번홀에서 시작한 강지만은 13번홀까지 행진을 벌이다 14번홀에서 2m짜리 베디를 냉난는 등 전반에 베디 3개를 속아냈고, 1번

홀에서 베디를 추가한 뒤 파5인 5번홀에서는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5m짜리 이글퍼트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이어 6~8번홀에서 베디를 연속 수확하면서 신바람을 냈던 강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홀에서 드라이브샷이 벗나가 보기를 범한 것이 아쉬웠다.

이달 초 신한동해오픈에서 프로데뷔 7년 만에 첫 우승을 일궈냈던 강지만은 "한 번 우승을 한 뒤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특히 퍼트가 잘 되는데다, 그린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왔다"면서 우승 욕심을 한껏 드러냈다.

지난주 토마토저축은행 제피로스오픈 우승으로 절정의 컨디션에 올라있는 강경남도 만만치 않았다.

강경남은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한 조정 선수 베디 왓슨(미국)을 연일 감탄시킨 절정의 쇼트게임과 퍼트 감각을 내세워 보기 없이 8개의 베디만 속아 냈다.

18번홀에서는 티샷이 왼쪽 숲에 들어갔으나 샷을 하는 방향에 방송 중계팀이 걸려 구제를 받아 과를 지켜내는 등 행운도 따랐다.

강경남은 "지난 주에 첫 우승을 한 뒤 컨디션이 아주 좋다"면서 "작년에도 이 대회에서 공동 3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퍼트 연습을 많이 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1라운드에서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공동 선두였던 양용은도 4타를 줄여 함께 10언더파 133타를 달렸으나 강지만과 강경남의 분발에 3위로 밀려났다.

왓슨은 함께 9언더파 133타로 이중훈(21·니켄트)과 공동 4위. 왓슨은 파4인 15번홀(378야드)에서 티샷을 골바로 그린에 올리는 장타력을 과시했으나 3m가 채 되지 않는 이글퍼트를 놓치는 등 퍼트 약점을 드러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번엔 100타점·100득점이다"

이승엽 한신 주말 2연전 기록사냥... 도쿄돔 최다 홈런 도전도

사흘 간 꿀맛 같은 휴식으로 재충전한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3일부터 시작되는 한신 타이거스와 도쿄돔 주말 2연전에서 세 가지 기록 사냥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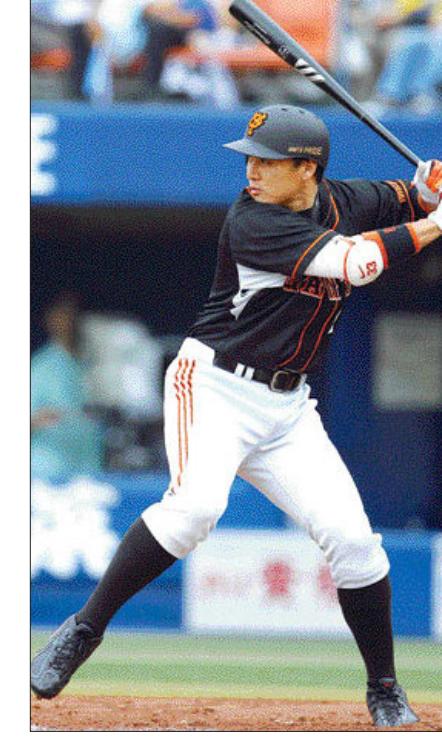
이승엽은 13경기를 낭겨둔 가운데 현재 시즌 40홈런과 97타점, 96득점에 타율 0.318(478타수 152안타)을 기록 중이다.

이번 한신과 두 경기에서 우선 달성을 목표는 클러치히터의 상징인 시즌 100타점.

이승엽은 일본에 진출하면서 시즌 100타점을 선언했지만 롯데 마린스 소속이던 2004년과 지난 해에는 각각 50타점과 82타점을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데일을 세어진의 출루가 많지 않음에도 필요할 때 한방을 때리며 97타점을 수확한 이승엽은 3개만 보태면 일본 무대에서 처음을 시즌 100타점 고지를 밟는다.

부분 1위는 20경기를 낭겨둔 타이론 우즈(주니치 드래곤스·109타점)라 추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00타점은 이승엽이 공격부문에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목표인 데다 요미우리 선수로는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현재 뉴욕 양키스) 이후 4년만이라 의미가 남 다르다.



이승엽은 또 득점 4개를 추가하면 시즌

100득점에 도달한다.

현재 득점 부문 1위는 후쿠도메 고스케의 101득점이다.

홈런 레이스에서도 '아시아 홈런킹' 이승엽의 중단 없는 도전은 계속된다.

왼쪽 무릎 부상 때문에 한 경기 3타석만 나서는 '한정 타석제'를 운영하다 전 타석 출장으로 선회한 이승엽은 올 해 도쿄돔에서 21개의 대포를 쏘아 올려 한 시즌 도쿄돔 최다기록(22개)에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승엽이 지난 18일 하로시마전 이후 침묵을 지켰던 홈런포를 재가동한다면 지난 2003년 로베르토 페타지니와 도쿄돔 최다홈런 부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승엽은 이번 기회에 홈런왕 타이틀을 위협하는 애덤 리스(야쿠르트·36홈런), 타이론 우즈(주니치·35홈런)를 멀리 따돌리며 요미우리 외국인선수 최다홈런기록(45개·터피 로즈·2004년) 경신을 위한 행진에도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남아공 꺾고 결선행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한국이 제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최약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파하고 결선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허세환 감독(광주일고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22일(한국시간) 쿠바 산타 클라라에서 열린 예선리그 A조 1차전에서 이두환(장충고)의 홈런 2개를 포함해 장단 15안타를 몰아쳐 남아공에 9-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2연패를 벗어나 2승2패를 기록했고 23일 네덜란드와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국이 네덜란드에 지고 파나마(1승3패)가 호주에 이겨 똑같이 2승3패가 되더라도 13-2로 대파한 파나마에 승자승에서 앞서 조 4위까지 주어지는 결선 티켓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조의 쿠바가 3연승을 달리고 있고 네덜란드 4승1패, 호주 2승1패, 남아공 4패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안타수에서 15-2의 압도적 우세가 보여 주 드 화끈한 공격으로 남아공 마운드를 허물었다.

2회말 선두타자 이두환(장충고)의 좌중월 1점 홈런으로 기선을 잡은 한국은 4회 김남석의 좌전 안타와 김강(이상 광주일고)의 2루타로 1사 주자 2, 3루를 만들었고 상대 투수의 3루 경재구가 빠지는 사이 김남석이 훔쳐 밟아 2-0으로 앞섰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5회 타자일순이며 5안타와 1볼넷, 상대 실책을 끓여 5득점해 7-0으로 달아났고 8-0으로 크게 앞선 8회 이두환의 솔로 아치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 선발 투수 이재근(경남고)은 6회부터 8회까지 무실점으로 남아공 탄선을 봉쇄, 승리의 디딤돌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지영 고국서 2승 신고

신세계배 KLPGA 최종 16언더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장타력을 마음껏 뽐낸 이지영(21·하이마트)이 국내에서 통산 2승을 올렸다.

이지영은 22일 경기도 여주시 자유골프장(파72·6천441야드)에서 열린 신세계배 제28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선수권대회 최종 리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떠려 3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00타로 정상을 올랐다.

작년 5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던 이지영은 이로써 국내 대회 2승을 모두 메이저대회에서 따냈다.

지난해 LPGA 투어 CJ나인브릿지클라식 제2회도 올해 LPGA 투어에 뛰어든 그는 300야드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장타를 앞세워 준우승 한 차례와 5위 두 차례 등 '톱 10' 입상 네 차례로 상금랭킹 20위에 올라 성공적인 투기 시즌을 보내고 고국 무대 우승컵까지 보태는 기쁨을 누렸다.

또 이지영은 한국프로골프 사상 54홀 최소타 타이기록까지 세워 경기를 맞았다.

54홀 200타의 기록은 1995년 크리스찬디를여자오픈 때 박세리(29·CJ)에 이어 올해

KB스타투어 1차전 때 안선주(19·하이마트) 등 두 명이 갖고 있었다.

1, 2라운드를 선두를 달렸던 홍란(20·이수건설)은 최종 리운드를 1언더파 71타에 그치며 5타를 줄인 안선주와 함께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공동 준우승에 민족해야 했다.

7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휘두른 박희영(19·이수건설)과 66타를 뽑아낸 최나연(19·SK텔레콤)이 함께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고 김혜정은 송보배(20·슈페리어)와 함께 공동 6위(12언더파 204타)에 머물렀다.

드 복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재활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크리스마스 이전 아스톤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12월 23일)부터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성은 "그렇게 오래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 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12월 23일 복귀

발복 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동안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복귀 무대는 12월 23일 아스톤 빌라와 원정경기다.

만유 구단 흠포이지는 21일(현지시간) 3개월 간 재활이 필요한 박지성이 그리운



23일(토)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텍사스〉(09:25-Xports)

▲KOVO컵 양산 프로배구대회(현대캐피탈-한국전력) (14:00-KBS SKY Sports)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결승전(02: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시애틀-시카고W〉(02:15-Xports)

▲KL-리그〈FC 서울-대전 시티즌〉(15:0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히로시마-한신〉(17:00-SBS스포츠)

▲프로야구〈신시내티-피츠버그〉(01:50-SBS스포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맨체스터

▲프로야구〈KIA-현대〉(13:50-SBS스포츠)

▲SK-삼성〉(14:00-MBC ESPN)

▲K-리그〈FC 서울-대전 시티즌〉(15:00-KBS SKY Sports)

▲수원-울산〉(17:00-KBS SKY Sports)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예선전(02: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시애틀-시카고W〉(02:15-Xports)

▲PGA투어 밸